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한주랑

서경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Social Responsibility in Nursing Students

Ju-Rang Han

Division of Nursing, Seoje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과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S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50명이었다. 자료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8년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수집하였으며 SPSS/WIN 23.0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은 사회적 책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책임, 대학생, 간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social responsibility in nursing students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leadership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250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elf-leadership and nursing professionalism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responsibility. Nursing professionalism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social responsibility. Conclusively, this results of study is meaningful to provide evidence to improve the self-leadership and maximize nursing professionalism to increase social responsibility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Social Responsibility, College Student, Nurs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의 기본 이념은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며, 간호사의 책무는 인간 생명

의 시작부터 끝까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 이르러 노령인구 및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글로벌 보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체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간호사 역할에 대한

*Corresponding Author : Ju-Rang Han(jrhan27@seojeong.ac.kr)

Received March 2,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April 5, 2019

Published May 28, 2019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이러한 간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포함시켜 국내 간호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1].

책임(responsibility)이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표현하도록 기대되는 행동의 정도이며[2], 개인의 경우 자립 성향을 강화하고 자아인지능력을 확대하며 자기결정성을 담보하는 능력이다[3]. Majumdar 와 Rana[4]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personal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 특히 교육·보건·위생 등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은 그 조직의 틀 안에서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간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병원 현장의 간호사뿐 아니라 직업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간호 학생 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elly et al.[5]는 간호대학생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Emory 간호대학에서는 교육의 핵심가치를 사회적 책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학생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례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혹은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문제를 임상실습에 포함시켜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법적·윤리적 책임의식을 간호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변수로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에서 사회적 책임은 정치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전문직 리더십, 시민행동,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 등[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인식에 전공교육만족과 사회성, 간호전문직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한[8]의 연구에서는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살펴본 것처럼 몇몇의 연구가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변수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 특히 그 중에서도 간호대학생

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변수로서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지시를 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며, 셀프리더십의 과정은 개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동적이고 인지적인 전략의 집합으로 구성되었다. 또 셀프리더십은 학습에 의해 유지, 발전할 수 있으며 높은 셀프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취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9]. Pearce 와 Manz[10]는 중앙집권적 리더십(centralized leadership)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무책임(CSIR: corporate social irresponsibility)에 대해 셀프리더십이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한[8]의 연구에서는 메타인지와 사회적 책임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직관, 전문직 리더십 등도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보고되었다[6,7].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와 간호에 대한 관념, 인상, 신념의 집합으로 간호활동과정이나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 간호사 직분에 대한 직업적인 견해이다. 이는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연결되며, 간호를 행하는 사람의 만족이나 의의와 관련 있다. 또 전문가나 실무자가 행동의 기준과 신념 및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도 한다[11]. 박[12]과 김[13]의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과 셀프리더십과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정 등[14]의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셀프리더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 사회적 책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아직까지 세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간호사들이 간호를 받는 대상자의 옹호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책임의 수준을 확인한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책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과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한민국 Y시에 위치한 S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으며, 임상실습으로 설문이 가능하지 않은 3학년을 제외한 1, 2, 4학년 27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시행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하였으며,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인자 2개로 하여 산출한 표본수는 107명으로 표본의 크기를 충족하였다. 대상자들에게는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중이라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 설문지는 익명 처리되며, 수집된 정보는 연구 목적 외는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262부이었으며, 이 중 부적합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25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는 2018년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수집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1983)에 의해 개발한 도구를 김[1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목표 설정, 자기기대, 자기비판, 자기보상, 리허설, 건설적 사고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별 3개 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15]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 .83이었다.

2.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 등(2005)이 개발한 도구를 한 등[16]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1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사회적 인식 5문항,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전문직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한 등[16]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 .88이었다.

2.3.3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Conrad와 Hedin(1985)이 개발하고 김[3]이 번안한 도구를 정[17]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18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사회적 책임성 태도 6문항, 책임성 수행 5문항, 책임성 능력 3문항, 책임성 효력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정 [17]의 연구에서 각 요인별 Cronbach' α 값이 .79~ .85의 범위에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 .87 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책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책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및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18]의 3단계 절차를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 206명(82.40%), 남자 44명(17.60%)이었다. 학년은 1학년 111명(44.40%), 2학년 85명(34.00%), 4학년 54명(21.60%)이었다. 또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133명(53.20%),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117명(46.80%)이었다(Table 1 참고).

3.2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책임의 정도

셀프리더십의 평균평점은 5점 만점 중 3.73±0.42 점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은 3.86±0.50점, 사회적 책임은 3.64±0.4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3.3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책임 간의 상관관계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r=.43, p<.001$) 및 사회적 책임($r=.56,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전문직관도 사회적 책임($r=.50,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44 (17.60)
	Female	206 (82.40)
grade	1	111 (44.40)
	2	85 (34.00)
	4	54 (21.60)
Religion	Yes	117 (46.80)
	None	133 (53.20)

Table 2. Level of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Social Responsibility (N=250)

Variable	Minimum	Maximum	M±SD
Self-Leadership	1.89	5.00	3.73 ± 0.42
Nursing Professionalism	1.94	5.00	3.86 ± 0.50
Social Responsibility	2.33	5.00	3.64 ± 0.49

Table 3. Correlation of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Social Responsibility (N=250)

Variable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Social Responsibility
	r(p)	r(p)	r(p)
Self-Leadership	1		
Nursing Professionalism	.43*	1	
Social Responsibility	.56*	.50*	1

* $p<.001$

3.4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및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및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Baron과 Kenny[18]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에 따라 검증하였다. 1단계의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43, p<.001$), 2단계의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56, p<.001$). 3단계에서 셀프리더십과 매개변수인 간호전문직관을 독립변수로, 사회적 책임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beta=.42, p<.000$), 간호전문직관과 사회적 책임($\beta=.32, p<.001$)이 모두 유의하였다.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의 β 값은 3단계의 β 값이 .42로 2단계의 β 값 .56 보다 작아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7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82로 0.1 이상이며, 분산팽창계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도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Table 4 참고).

Table 4.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Social Responsibility (N=250)

Step	Variable	β	t	p	Adjusted R ²	F	p	VIF
1	Self-Leadership → Nursing Professionalism	.43*	7.38	.000	.18	54.53	.000	1.00
2	Self-Leadership → Social Responsibility	.56*	10.53	.000	.31	110.84	.000	1.00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 Social Responsibility				.39	79.21	.000	
3	Self-Leadership → Social Responsibility	.42*	7.69	.000				1.22
	Nursing Professionalism → Social Responsibility	.32*	5.76	.000				1.22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 중 3.7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한[8]의 연구에서 3.76점, 서 등[19]의 연구에서 3.68점, 왕 등[20]의 연구에서 3.64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셀프리더십의 수준을 측정한 김 등[21]의 연구에서 3.40점, 조 등[22]의 연구에서 3.36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임상간호사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들과 간호사들의 셀프리더십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 중 3.8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이 등[23]의 연구에서 3.73점, 정 등[14]의 연구에서 3.71점 보다는 높으며, 홍[24]과 이 등[25]의 연구에서 3.8점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간호전문직관 수준을 측정한 최 등[26]의 연구에서 3.5점, 윤 등[27]의 연구에서 3.34점, 중소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을 측정한 최[28]의 연구에서 3.23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임상간호사에 비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지역이나 환경 등에서 발생되

는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24시간 환자 곁을 지켜야하는 긴박한 임상 현장과 위계지향적인 간호조직 문화 속에서 간호사들은 간호대학생 시 가지고 있던 셀프리더십이나 간호전문직관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아닐지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향후 간호대학생이 가지고 있던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이 간호사가 된 후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지 추적조사를 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은 5점 만점 중 3.64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의 수준을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한[8]의 연구에서 3.69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나 김 등[7]의 연구에서 3.39점,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29]의 연구에서 3.48점 보다 높은 점수이다. 방[29]의 연구에서는 사회계열의 대학생들이 공학계열의 대학생에 비해 사회적 책임의 요소 중 책임성의 의무와 태도 면에서 유의하게 높다고 밝히고 있다. 김 등[7]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은 사회적 책임의 하위 요소 중 책임성의 의무가 가장 높았으며, 그에 반해 책임성의 능력 부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여, 간호대학생들은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간호의 특성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간호대학생 혹은 간호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8]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박 등[30]은 셀프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김 등 [31]은 사회적 책임과 조직시민행동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고 지시하면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스스로 성취해 나가는 학생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허나 아직까지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사회적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등[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수라고 보고한 결과와 동일하다. 즉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함 등[32]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과 형성에 간호사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문직관과 사회적 책임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간호전문직관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전문직관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높고 간호전문직관이 강할수록 사회적 책임감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간호대학생들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리더가 되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행동하는 것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책임감있는 활동을 하도록 촉진시킬 것이며,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써 타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는 전문직(profession)이다. 전문직이라 함은 개인적·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지적 활동을 하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타심으로 동기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미래의 간호를 담당할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대학에서부터 강구하여 적용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책임의 향상을 위해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향후 간

호사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과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 사회적 책임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의 교과목 개발 및 교과과정 외 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적용한 후 사회적 책임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3). *The Korean nurses' code of ethics*.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mn=2#s1
- [2] M. Shaw. (1971). *Group Dynamics*, McGraw-Hill. cited by J. S. Kim. (2000). *(The) Impact of youth service learning o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Doctoral dissertation. Myong Ji University, Seoul.
- [3] J. S. Kim. (2000). *(The) Impact of youth service learning o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Doctoral dissertation. Myong Ji University, Seoul.
- [4] M. G. Majumdar & H. Rana. (2015). Personal socia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5(8), 5342-5348.
- [5] M. A. Kelley, A. Connor, K. E. Kun & M. E. Salmon. (2008).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ualization and embodiment in a school of nur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5(1), 1-16. DOI : 10.2202/1548-923X.1607

- [6] B. E. Moely, M. McFarland, D. Miron, S. Mercer & V. Ilustre. (2002). Change in college students' attitudes and intentions for civic involvement as a function of service-learning experience.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9(1), 18-26. <http://hdl.handle.net/2027/spo.3239521.0009.102>.
- [7] J. G. Kim, T. W. Lee & N. K. Han. (2018).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1), 21-29. DOI : 10.11111/jkana.2018.24.1.2
- [8] J. R. Han. (2018). The effect of metacognition and self-leadership on social responsi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1), 393-400. DOI : 10.14400/JDC.2018.16.11.393
- [9] C. C. Manz & H. P. Sims. (1991).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9(4), 18-35. DOI : 10.1016/0090-2616(91)90051-A
- [10] C. L. Pearce & C. C. Manz. (2011). Leadership centralit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IR): The potential ameliorating effects of self and shared leadership on CSIR.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2, 563-579. DOI : 10.1007/s10551-011-0828-7.
- [11]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 [12] H. J. Park. (2015).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27-236.
- [13] E. H. Kim. (2016). Relationships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and empower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4(1), 532-541. DOI : 10.15205/kschs.2016.4.1.532
- [14] K. I. Jung, H. G. Son & K. S. Jeong. (2018). The factor affecting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3), 1595-1607.
- [15] H. S. Ki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16] S. S. Han, M. H. Kim & Y. E. Yun.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 [17] I. H. Jeong. (2014). *Attitude and commitment of college students on business refer to their understanding of CSR*. Master's Thesis. Dong Eui University, Busan.
- [18]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19] I. S. Seo, H. E. Park & J. Y. Kim. (2016). Impact of self-leadership and metacognition on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6), 3423-3436.
- [20] H. J. Wang, S. A. Jung, H. E. Park, H. S. Yoo, Y. H. Bae & J. Y. Kim. (2016). The metacognition,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619-627. DOI : 10.5762/KAIS.2016.17.9.619
- [21] S. Y. Kim, E. K. Kim & B. S. Kim. (2016). Effects of nurses' self-leadership and team trus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2(4), 353-361. DOI : 10.11111/jkana.2016.22.4.353
- [22] Y. M. Cho & M. S. Choi. (2016). Effect of clinical nurses's basic psychological need, self-leadership and job stress on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8), 343-353. DOI : 10.14400/JDC.2016.14.8.343
- [23] O. S. Lee & E. J. Kim. (2018).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nsciousness of bioethic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4), 251-258. DOI : 10.14400/JDC.2018.16.4.251
- [24] E. Y. Hong. (2017). Convergence study of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and satisfaction of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85-93. DOI : 10.15207/jkcs.2017.8.10.085
- [25] S. Y. Lee & J. S. Lee. (2017). The convergent effect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ocial support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403-412. DOI : 10.14400/JDC.2017.15.12.403
- [26] S. Y. Choi & M. A. Lee. (2018). Effects of job embeddedn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intent to stay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3), 234-244. DOI : 10.11111/jkana.2018.24.3.234
- [27] H. K. Yoon, J. H. Choi, E. Y. Lee, H. Y. Lee & M. J. Park. (2013). Effects of decision making competen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mpulse among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5), 658-667. DOI : 10.11111/kana.2013.19.5.658
- [28] Y. S. Choi. (2014). Nursing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 focused on "I" c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695-2702. DOI : 10.5762/KAIS.2014.15.5.2695

- [29] D. H. Bang. (2013). *Human rights aware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effect on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30] J. H. Park, E. K. Yun & S. S. Han. (2009). Factors influencing nurs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Journal Korean Academy Nursing*, 39(4), 499-507.
DOI : 10.4040/jkan.2009.39.4.499
- [31] H. S. Kim, J. D. Kim, S. D. Kwon, Y. W. Song, D. Y. Chun & Y. J. Joo. (2017).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CSR and OCB : Focused on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2), 97-134.
DOI : 10.24991/KJHRD.2017.06.20.2.97
- [32] Y. S. Ham, H. S. Kim, I. S. Cho & J. Y. Lim. (2011).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536-544.

한 주 량(Han, Ju Rang)

[정회원]



- 1981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사)
- 1987년 8월 :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교육학석사)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1981년 3월 ~ 2003년 7월 :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수간호사/팀장
- 2003년 8월 ~ 201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국장
- 2014년 2월 ~ 현재 :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교육
- E-Mail : jrhan27@seojeong.ac.kr